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4. 19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**獨, 축구장 폭탄테러 모의한 ISIS 연계 10대 체포**
  - 4.13 언론은 ISIS가 올 여름 독일에서 개최되는 '유로 2024 축구'를 겨냥해 폭탄 테러를 선언, 獨 경찰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테러 방법·피해 극대화 등을 모의한 10대 청소년(4명)을 체포했다고 보도
    - ※ 獨 당국은 "ISIS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테러범을 모집하고 있다"며 주의 당부

#### 미주

- **美, 고조되는 테러 위협 속 외국인 감시 강화법 촉구**
  - 4.11 외신은 「레이」 美 FBI 국장이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영장 없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'해외정보감시법\*(702조)' 재승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
    - \* 同 조항은 미국 영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잠재적으로 미국 시민에 대한 감시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 상존
- **美, 총기 구매자 신원조사 등 강화된 총기 규제 방안 마련**
  - 4.13 언론은 미국 법무부가 '총기 전시회의 허점\*'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총기 판매자도 앞으로 연방 정부 허가를 받고, 구매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도
    - \* 현재 미국에선 허가를 받아야 총기 판매 사업이 가능한데, 전시회에서는 총이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허가 없이 판매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

#### 중동

- **이란,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헤즈볼라·후티 叛軍도 가세**
  - 4.14 언론은 이란이 보복을 약속한 지 2주 만인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300개 이상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했으며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親이란 세력도 공격에 동참했다고 보도
    - ※ 발사체 가운데 99%는 이스라엘군, 미군, 영국군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부상자는 12명으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

## 아 · 태평양

- 日, 단기체류 비자 면제 외국인 대상 온라인 입국 신고 도입
  - 4.11 언론은 日 정부가 테러 요주의 인물 및 범죄자 등의 입국 저지를 위해 '30년까지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, 입국 목적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고·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
  - ※ 대상은 관광이나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체류 비자 취득을 면제받은 국가·지역의 입국 희망자로 4월 현재 71개국·지역이 해당
- 韓 국정원, 해외 온라인 쇼핑몰 '안전危害물품' 반입 차단에 주력
  - 4.15 국정원은 국내법(관세법·총포화약법 등)으로 규제가 쉽지 않은 수입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등이 해외 온라인에서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확인,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대책 강구할 방침
  - ※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물품으로 타정총과 사제총기를 개조·제작하여 실험한 결과, '인명 살상'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
- 미얀마, 제2의 도시 축제장서 폭탄 테러로 최소 12명 이상 부상
  - 4.15 언론은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市 물축제행사中 주차장에서 폭발물 2개가 폭발해 어린이 5명 등 12명이 부상했으며, 軍政측은 同 폭발이 민주 진영 '국민통합정부' 산하 군사 조직인 '시민방위군'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
  - ※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(AA)·타양민족해방군(TNLA) 등으로 구성된 '형제동맹'은 지난해 북부 산주 공격 개시(10.27) 이후 중국 국경 지역을 장악했다고 부언
- 방글라데시 船社, 소말리아 해적\*에게 몸값 70억원 지불
  - 4.15 언론은 지난달 모잠비크에서 두바이로 이동하는 방글라데시 벌크선(MV압둘라호)을 소말리아 해적이 인도양에서 나포했으며, 선사 측에서 선원들 몸값으로 약 70억원을 지불 후 석방됐다고 보도
  - \* 최근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한 親이란 예멘 후티叛軍의 공격이 잇따르자 다시 기승을 부리며 선박 납치를 시도

파키스탄, 중국인 겨냥 자폭테러

- '22. 4. 26 이슬람 복장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이 파키스탄 카라치대학內 공자학원을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를 자행, 중국인 3명 포함 4명 사망  
중국사상 및 언어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은 '20년 기준 162개국 545개 설치, 국내에도 20여개 운영중
  - 사건 직후 발루치스탄 해방군(BLA)이 “同 테러 배후를 자처했다”는 성명을 발표
    - BLA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“一帶一路\*(중국·중앙아·유럽을 연결하는 육·해상 실크로드) 사업의 경제적 이익이 중국에 귀결된다”며 불만을 토로, 파키스탄內 중국인·시설 등을 겨냥한 테러를 지속 시도
      - \* '13년부터 중국은 인도양으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까지 이어지는 ‘경제회랑’을 추진하면서 파키스탄內 도로·철도·발전소 등의 사업을 시행
  - 이에, 중국 외교부는 “同 테러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, 파키스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테러리스트를 단호하게 대응할 것”이라며 성명 발표
    - \* 당시 파키스탄 총리는 中 대사관을 방문해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테러단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중국과의 협력도 지속 유지하길 원한다고 표명
    - '24.3.26 파키스탄 카이버팍툰과州에서 중국인 대상 폭탄테러로 6명 사망
- ⇒ 최근에도 파키스탄內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폭탄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, 현지에 거주中인 우리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심 필요

< 발로치스탄 해방군(BLA)>

- (목표) 파키스탄·아프가니스탄內 발로치 거주지역에 독립국가 건설  
\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19.7), 영국('06.7), 파키스탄('06.4)
- (조직규모) 6,000명('22.4 자체 발표)
- (연계세력) 발로치 해방전선(BLF), 발로치 공화국 수비대(BRG) 등
- (핵심인물) 바쉬르 자이브 발로치(총 사령관)
- (활동지역) 발로치스탄(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접경 산악지역)
- (활동수법) 파키스탄內 중국 시설 및 중국인 대상 테러
- (주요동향) '21.8 파키스탄 과다르에서 중국인 겨냥 자폭테러 2명 사망, 3명 부상